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한다는 뜻이다.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분에 관한 적어도 다섯 가지의 영적 사실을 붙잡고 믿는 것이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이다.

첫째는 영세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이다. 그 말은 그 분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창3장의 저주, 인생의 근본 저주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는 그 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오늘 그 이유를 분명히 잡아야 한다.

셋째는 그 분이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 제사장, 왕,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새 생명을 주신 것이다.

넷째는 그 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언제 다시 오실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날이다(마24:14). 그래서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전도가 되어질 수 밖에 없도록 모든 만남, 일, 문제, 아픔까지도 증거로 바꾸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행1:8)

다섯째는 모든 인생은 그 분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이다(계20:11-15). 우리도 악한 행위가 많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을 미리 받으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그 이후에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1. 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을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 그 분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이 겪어야 하는 적어도 세가지 저주를 끝내야 했기 때문이다. 죄에 대한 저주이다(원죄, 조상죄, 자범죄). 사단에게 묶여 당하는 저주이다(운명). 영원한 지옥 저주이다.

우리의 저주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성육신, 비하), 십자가에서 처절한 수치, 고통, 죽음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끝내신 것이다(대속).

그리스도에게는 너무 고통스런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너무 기쁘고, 감사 할 수 밖에 없는 시간이 된 것이다.

1)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복음)을 전해준 것이다(10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분은 마구간의 구유 위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11-12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낮아지심인데, 출생하는 장소도 가장 비천한 말 구유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표적(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2) 이때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함께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13-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의미일까?

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의 대속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분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②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온통 세상은 분쟁과 전쟁만 가득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중요한 축복 중에 축복이 평화이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했다

첫째는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이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가 되도록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엡2:14)

둘째는 내 안에 주시는 평화이다. 첫 인생이 타락하면서 수치, 근심,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이 되었다(창3:1-10).

그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요14:27)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든 인생 뿐 아니라 만물까지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만드셨다고 한 것이다(골1:20)

2.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세가지의 축복을 누릴 자가 되는 것이다.

1)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다 끝내신 것이다(요19:30)

그런데 왜 내게 문제, 고통, 수치가 또 오는가? 문제 아니다. 그 시간이 갈보리를 체험하는 시간이다.

내 문제가 그리스도가 당한 수치,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그것이 갈보리를 체험할 기회는 된다.

그래서 아픔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보면 중요한 치유가 이루어질 것이다(사53:5).

2)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가 된 것이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인생이 가진 축복이었다(창1:27, 2:7)

① 그리스도가 이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요1:14).

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한 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가 된 것이다(사60:1-2).

②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기도로, 24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 내 인생에 빛이 나게 되어 있다.

그 빛 앞에 흑암은 썩이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

③ 사람 앞에서, 사람 때문에, 사람의 것으로 이것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결국 속는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존귀한 자가 된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을 누리라.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보좌화의 축복이다

역울하게 팔려간 요셉이, 양을 치던 다윗이, 도망자였던 모세가, 핍박자였던 바울이 이 축복을 누린 것이다.

3) 여기서 따라오는 축복이 그 분이 주시는 평화이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라(롬5:1)

하나님을 예배하고(예배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고(기도 중심),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훈련하라(묵상 중심)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영성, 영적 썩임의 축복), 그때 모든 문제의 배후에 있는 어둠이 무너진다(롬16:20).

②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한다.

마귀는 계속 문제, 갈등, 어려움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뺏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마음의 병도 든다(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문제). 몸에도 병이 든다(콜레스테롤, 당뇨, 암)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어 기도해보라.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주장하신다고 했다(빌4:6-7)

③ 그때 사람들과의 평화가 회복된다. 다 돌아올 것이고, 아버지의 집은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했다(사60:4-7)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생각만 바꾸고, 믿음만 회복하면 된다.

결론-갈수록 어려운 세상이다. 그러나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의 세가지 절대 해답을 확실하게 잡으라(절대 믿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절대 구원).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게

그의 영광을 주신 것이다(절대 축복). 그리스도는 내게 평화를 주시고, 나를 평화의 사도로 삼은 것이다(절대 미션)